

## 김사량의 『태백산맥』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성격 고찰\*

이 경 재\*\*

### 요약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김사량의 『태백산맥』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저항성, 민족성, 소수자성,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아닌 유토피아를 키워드로 삼아 작품을 살펴 보았다.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태백산맥』의 기본 서사가 서울에서 정치적 실패를 맞본 윤천일 일가가 강원도의 산골에서 화전민으로 살다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태백산맥』의 유토피아적 성격에 대한 탐구는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의식을 해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유토피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김사량의 산문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다. 김사량의 『태백산맥』에는 ‘프로그램화 된 이상으로서의 유토피아’와 ‘다른 세상에 대한 꿈으로서의 유토피아’가 모두 나타나며, 작가는 전자가 아닌 후자를 지향한다. 특히 유토피아적 프로그램에 집착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은 화전민 마을까지 파고든 사교(邪敎) 집단의 형상화를 통해 드러난다. 김사량이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막연하지만 보편적인 이상향으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기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 때의 유토피아는 대개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 때 대타향으로 등장하는 것은 서울, 화전(民), 월동의 정치적 입장이다. 낙토에는 대타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방식으로 긍정적 성격이 부여되기도 한다. 고대 국가들의 이상적인 정신이나 화랑도, 그리고 아리랑을 비롯한 전통적인 풍속 등이 긍정적으로 서사화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탈식민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사량의 『태백산맥』에 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타난 유토피아 지향성은 일제 말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김사량의 저항적인 의식이 창출해낸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주제어: 김사량, 태백산맥, 유토피아, 화전민, 서울, 탈식민

## 목차

1. 서론
2. 김사량과 강원도 산골, 그리고 화전민
3. 사교(邪敎)를 통해 드러난 프로그램화 된 유토피아의 문제점
4. 대타적으로 존재하는 유토피아 층등
5. 유토피아의 탈식민적 성격
6. 결론

## 1. 서론

김사량의 『태백산맥』(『국민문학』, 1943.2-4, 6-10)은 김사량이 10여 년의 일본 체류를 끝내고, 귀국하여 발표한 첫 번째 소설이다. 일제 말기의 어둠이 짙던 시기에 창작되었기 때문인지, 『태백산맥』에 대한 논의는 일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지금까지는 『태백산맥』이 친일과는 거리가 먼 작품이라는 것에 의견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태백산맥』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 할 수 있는 임종국의 「金史良論」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임종국은 『태백산맥』의 “밑바닥에는 맥맥히 흐르는 민족의식과 향토에 대한 애착심”이 있으며, “설익은 시국적 설교도 없거니와 어릿광대 같은 일본정신의 선전도 보이지 않는다”<sup>1)</sup>라고 평가하였다.

2000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학술논문들도 『태백산맥』

1) 임종국, 「金史良論」,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203면.

』에 나타난 저항성과 민족성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서은혜는 『태백산맥』이 역사에 대한 절망적 인식도 드러내지만, “다루고 있는 시기가 구한말의 격동기로서 민족의 고난과 함께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 설정이라는 점, 또한 주인공 윤천일의 꺾일 줄 모르는 의지와 그의 두 아들 일동과 월동의 나라를 위한 충정 등을 강조한 점에서 단순히 시국 영합적 작품이라든가 친일작품이라고 치부해 버리지 못하게 한다.”<sup>2)</sup>고 주장한다. 김학동은 김사량의 『태백산맥』이 “식민지로 전락한 암담한 조선의 현실을 기조로 하면서도 주체하기 어려운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민족독립에 대한 희망을 치밀한 계획 아래 그려낸 작품”<sup>3)</sup>이면서, 동시에 조선적인 정서와 풍습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학동은 다른 글에서도 “김사량의 『태백산맥』은 엄습해 오는 민족의 앞날에 대한 절망을 부정하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작가의 몸부림”<sup>4)</sup>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춘매는 『태백산맥』이 “화전민들의 실생활, 경제, 건강, 문명 상황 등을 리얼하게 보여주면서 이들의 정치 없는 삶을 조성한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신천지’, ‘낙토’ 등 일제가 사용하는 표현을 빌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도를 사고하고 고민했다.”<sup>5)</sup>고 고평하였다. 이자영은 “『태백산맥』은 어용잡지 『국민문학』에 실리기는 했으나 조국과 민중을 염려하는 작가의 민족의식이 흐르고 있”<sup>6)</sup>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저항성과 민족성 이외의 다른 측면에도 주목한 연구들이 발

2) 서은혜, 「김사량의 ‘民族我’에 관하여」, 『한립일본학연구』 4집, 1999, 101면.

3) 김학동, 「김사량의 『태백산맥』과 민족독립의 꿈 - 조선민중의 혼을 담아내기 위한 글쓰기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68집, 2006.8, 192면.

4) 김학동, 「김사량, 김달수, 조정래의 『태백산맥』」, 『내일을 여는 역사』, 2008년 가을호, 198면.

5) 이춘매, 「김사량의 소설에 반영된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삶과 이산」, 『한중인문학연구』 29집, 2010.4, 86면.

6) 이자영, 「김사량의 『태백산맥』은 작가의 민족의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34집, 2010.4, 407면.

표되고 있다. 서영인은 표상불가능한 화진민의 형상에 주목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작가의 계몽의지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을 논의하였다. “김사량이 추구해 온 조선적인 것의 고유성, 특수성은 강압적 지배질서로 온전히 정복할 수 없고, 계몽적 의지와 투지로 쉽게 극복될 수 없는 식민주의의 현실을 단속적이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환기하고 있다.”<sup>7)</sup>는 것이다. 윤대석은 가라타니 고진의 ‘유동론’에 바탕하여, 『태백산맥』이 “쫓겨난 자, 떠도는 자의 유동성이 가진 가능성을 포착”<sup>8)</sup>했다고 고평한다. 이희원은 김사량 소설 전반의 공간 형상화 전략을 논의한 글에서, 『태백산맥』의 공간 형상화 방식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sup>9)</sup>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김사량의 『태백산맥』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저항성, 민족성, 소수자성,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아닌 유토피아를 키워드로 삼아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토피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태백산맥』의 기본 서사가 서울에서 커다란 정치적 실패를 맞본 윤천일 일가가 강원도 산골에서 화진민으로 살다가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태백산맥』의 유토피아적 성격에 대한 탐구는 작품의 본질적인 성격을 해명함과 더불어 일제 말기 김사량의 작가정신을 해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래 유토피아는 공간적 측면에서 ‘여기-이곳’과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는데,<sup>10)</sup>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낙토(樂土)는 이러한 특

7) 서영인, 「김사량의 『태백산맥』과 조선적 고유성의 의미」, 『어문론총』, 62집, 2014, 504면.

8) 윤대석, 「김사량 소설과 동아시아 민중 사상」, 『국제어문학회 사가 국제학술대회』, 2018, 79면.

9) 이희원, 「일제 말기 김사량 소설의 공간 형상화 전략 연구」, 『한국민족문화』 77집, 2020, 211-223면. 이희원의 논의는 이 논문과 같이 『태백산맥』에 드러난 유토피아적 성격에 주목하였다. 이희원은 『태백산맥』에는 물신주의적 유토피아와 메타적 유토피아가 나타나는데, 이때 물신주의적 유토피아가 “제국 일본이 선전하던 이상향과 닮아있는 전체주의적 면모를 가지며 체제를 내면화한 마이너리티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깊은 절망을 반영”(위의 논문, 228면)한다면, “메타적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력 속에는 절망적 현실을 성찰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작동”(위의 논문, 228면)한다고 주장한다.

정에 그대로 부합한다. 김사량의 『태백산맥』에서 윤천일 부자가 애타게 찾은 낙토(樂土)는 얼핏 보면 유토피아가 아닌 낙원(paradise)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낙원이 그 자체로 완벽한 곳인데 반해 유토피아는 불완전하며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낙토는 낙원이 아니라 유토피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한구는 “낙원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순박하여 다툼과 전쟁이 없이 평화로우며, 자연이 풍요로워 의식주 걱정이 없고, 무병장수하며, 성적 쾌락을 포함하여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sup>11)</sup>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유토피아는 낙원과 달리 인간들의 모든 욕망을 무한히 충족시킬 정도로 풍요롭지 않으며, 이상적인 세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sup>12)</sup> 이와 관련하여 일동과 월동이 발견한 ‘안주(安住)의 땅’은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신만고 끝에 낙토를 발견한 일동은 그 곳을 아버지인 윤천일에게 “땅은 비옥하고 물도 있으며 숲은 있으나 경사는 완만하고 분지도 평탄”<sup>13)</sup>하다고 소개할 뿐이다.

본래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유토피아주의가 사회의 진보를 앞당긴다는 것부터 끔찍한 폭력과 억압을 유발한다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존재”<sup>14)</sup>한다. 유토피아가 지닌 이러한 의미적 풍요로움은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비롯된다. ‘유토피아(utopia)’라는 단어는 ‘장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토포스(topos)와, 양질을 뜻하는 접두사 eu와 부정을 나

10) 오봉희, 「유토피아 문학의 형성과 발전」, 『유토피아 문학』, 알렙, 2021, 22면. 티에리 파코는 유토피아가 “주변 세계와의 단절, 공간상의 이탈과 관련된다.”(티에리 파코, 『유토피아』, 조성에 옮김, 동문선, 2002, 81면)고 주장하였다.

11) 이한구, 「한국인의 유토피아」, 『유토피아 인문학』, 석탑출판, 2013, 182면.

12) 위의 책, 185면.

13) 김사량, 「태백산맥」, 『김사량, 작품과 연구4』,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14, 185면. 앞으로 『태백산맥』을 인용할 경우, 본문 중에 이 책의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14) 이명호, 「저 멀리, 아직은 아닌 세계를 향해」, 『유토피아 문학』, 알렙, 2021, 7면.

타내는 접두사 ou가 합성된 단어로서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유토피야’는 어떤 점에서는 ‘좋은 장소’, ‘행복의 장소’를 뜻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곳’ ‘어디에도 없는 곳’을 의미하면서 실제 지리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뜻을 담고 있다. 결국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닿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sup>15)</sup> 유토피아라는 말에 내재된 추상성과 이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인간은 다양한 욕망을 유토피아에 투사해왔다.

유토피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론적 축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유토피아 문학을 “유토피아적 프로그램의 실현에 전념하는 것’과 ‘온갖 암시적 표현이나 습관 속에서 표면화하는, 애매하지만 편재하는 유토피아 충동’으로”<sup>16)</sup> 나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 전자는 유토피아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이상을 말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막연하나마 ‘지금-여기’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충동과 지향으로서의 꿈을 의미한다.

첫 번째 입장은 유토피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된다. 유토피아적 프로그램의 실현에 몰두하는 것은 경직된 이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마리 루이즈 베르네리는 그동안 제시된 유토피아들이 대부분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특성을 지녔으며, 개인의 존엄이나 개성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한다.<sup>17)</sup> 에밀 시오랑은 유토피아 체제들의 특징은 “사회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최종적인 것에 대한 강박관념과 아울러 가능한 한 빨리, 가까운 장래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조바심이

15) 티에리 파코, 앞의 책, 10면.

16) Fredric Jameson, *Archaeologies of the Future*, London:Verso, 2005, pp.18-19. 남상욱, 「아름다운 마을은 내 마음속에!」, 『유토피아 문학』, 알렘, 2021, 149면에서 재인용.

17) 마리 루이즈 베르네리, 『유토피아 편력』, 이주명 옮김, 펴맥, 2019, 4-17면.

있다.”<sup>18)</sup>고 말한다. 결국 유토피아는 “경직과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개념으로 유용하지만 결코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되는 이상향이다.”<sup>19)</sup>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두 번째 입장은 유토피아를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현실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사상적 지향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유토피아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서 칼 만하임은 기존 질서를 인정하고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상은 이데올로기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넘어서려는 사상은 유토피아로 규정하였다.<sup>20)</sup> 티에리 파코는 유토피아가 정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유토피아는 사회 통념들을 부인하고, 확신들을 뒤흔들고, 삶에 대한 다른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 나타난다.”<sup>21)</sup>고 말한다. 김미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유토피아가 기존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한 이상적인 다른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은연중에 당연하다고 여겨온 사회의 지배적 운영원리, 논리, 가치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현실 지배적 사회질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것일 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설파한다고 주장한다.<sup>22)</sup>

김사량의 『태백산맥』에는 ‘프로그램화 된 이상으로서의 유토피아’와 ‘다른 세상에 대한 꿈으로서의 유토피아’가 모두 나타나며, 작가는 전자가 아닌 후자를 지향한다. 특히 급박하게 유토피아적 프로그램에 집착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은 화전민 마을까지 파고든 사교집단의 형상화를 통해 드러난다. 이와 달리 김사량이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막연하지만 보편적인 이상향으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2장에서는 평양 출신의 엘리트인 김사량과 강원도 화전민과의 인연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급박한 유토피

18) 에밀 시오랑, 『역사와 유토피아』, 김정숙 옮김, 챗터하우스, 2022, 188면.

19) 위의 책, 7면.

20) 칼 만하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임석진 옮김, 김영사, 2012, 235-412면.

21) 티에리 파코, 앞의 책, 9면.

22) 김미정,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를 ‘함께’ 만들기 위해」, 『유토피아 문학』, 알렙, 2021, 211면

아 지향성이 갖는 문제점을 사고 집단의 형상화를 통해 논의하고, 4장에서는 현실 비판의 보편적 대타향으로서의 유토피아 지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태백산맥』의 유토피아에 나타난 탈식민적 성격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2. 김사량과 강원도 산골, 그리고 화전민

김사량은 평양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며, 이후 일본에서 작가로서 입신하였다. 이러한 이력을 고려할 때, 김사량과 강원도 산골은 거의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강원도 산골은 김사량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다. 김사량의 형인 김시명은 흥천 군수를 역임하였으며<sup>23)</sup>, 김사량은 학창 시절에도 자주 강원도의 화전민 지역을 취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사량은 산문 「마을의 작부들-화전 지대를 가다 3」(「村の酌婦たち - 火田地帯を行く(二)」(『文藝首都』, 1941.5))에서 “이 흥천읍은 좋은 곳든 내게는 인상 깊은 곳이다. 나는 이 읍에 네다섯 번 온 적이 있다. 가형(家兄)이 이곳에서 군수(長)로 이삼 년간 일했던 적이 있어서다.”<sup>24)</sup>라고 그 사정을 밝히기도 하였다. 「산골의 수첩」(『동아일보』,

23) 김시명은 교토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 고등문관 시험에서 사법과 행정 양과에 합격하고, 강원도 흥천 군수 및 평창 군수를 거쳐, 황해도청 농상부장 겸 도참여관을 역임하고 조선총독부의 마지막이자 조선인 최초의 전매국장이 되었다. 1934년에는 강원도 흥천군 지방관으로 임명되었다가 1935년 6월에 군수로 승진해 1935년 7월까지 흥천군수로 재직하며 흥천농민훈련소 소장을 겸했다. 1937년에는 강원도 평창군 군수를 겸임했으며, 그는 행정관으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어, 1937년 11월에는 흥천군 두촌면의 주민들이 그를 위해 송덕비를 세운 사실이 신문에 실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 후 김시명은 1940년 4월부터 9월까지 강릉군수를 지냈다. (김석희, 「김시명(金時明)의 생애와 “친일”—식민지 관료소설로서의 『풀 속 깊이』를 출발점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5권 2호, 2010, 87-91면)

24) 김사량, 「마을의 작부들 - 화전 지대를 간다 3」, 『김사량,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영덕 편역, 역락, 2009, 232면.

1935.4.21.-4.28)에는 방학을 맞아 조선에 돌아온 김사량이, 병환 중인 어머니를 만나는 대신 강원도로 향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내마음의 煩悶과 괴로움을 장사지남에 그 淸楚와 素樸을 感受케하는 곳 오직 江原道가 있”<sup>25)</sup>으며, “그곳에는 親愛하는 家兄이 또 귀여운 어린족하애들이 나를 반길 것이며 사랑하는 동모 R도 있어 내 움을 理解”<sup>26)</sup>하여 준다는 것이다. “나를 가르키고 나를 꾸짖고 나를 붓도둑는 故國의 山谷땅에 찾아싸다니며 自然에서 동모와 사랑과 偉大한 教師를 찾아 웃고 울고 하소할때 그 割然한 心象이 필시 나를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주리라.”<sup>27)</sup>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강원도의 자연을 거의 경배의 대상으로까지 여기는 듯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매혹을 단순히 자연에 대한 애정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山寺吟」(『조선일보』, 1934.8.7.-8.11)에는 그러한 매혹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sup>28)</sup> 또한 「산곡의 수첩」에서 춘천의 “新開地의 魅力”<sup>29)</sup>과 소양강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던 김사량은 화전민들이 피워 올린

25) 김사량,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1.

26) 김사량,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1.

27) 김사량,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1.

28) 화전민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쓰여진 글(「번역된 식민지 오지 기행<폴숲 깊숙이> 창작과정 연구」, 『김사량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소명출판, 2017)에서, 광형덕은 「산사음」을 「산곡의 수첩」과 함께 「김사량이 사가고등학교 재학 중에 강원도 일대를 기행하고서 쓴 것」(265)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서두에 ‘이곳은 平壤서 四十里 平南線으로 둘째 번인 조고마한 村驛에서 下車하야 十里 안쪽의 山이다;’라고 나와 있듯이 이 기행문은 강원도 대보산(大寶山)에 다녀온 후 쓴 것으로, 노승老僧에게 느낀 감상(비판)과 자연自然경관에 대한 감탄이 주를 이룬다.”(266)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산사음」에는 대보산이 강원도에 있는 산이 아니라 평양 근교에 있는 산이라는 근거가 나열하기 힘들만큼 많이 등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만 든다면, “이산의東으로는, 溶溶한大同江을 새어두고 百里의平壤沃野가展開되다. 그리고그것은 彩色한地圖이다.”(『조선일보』, 1934.8.10.)라는 문장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광형덕이 인용하고 있는, “이곳은 平壤서 四十里 平南線으로 둘째 번인 조고마한 村驛에서 下車하야 十里 안쪽의 山이다;”(『조선일보』, 1934.8.7.)라는 문장이야말로 대보산이 강원도에 위치한 산이 아니라 평양 근교의 산임을 입증한다. 평남선은 평양과 남포를 오가는 노선이며, 평남선의 역에서 내려 십리(약 3.9km) 안쪽에 있는 산이 강원도에 위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화연을 보고는 흥천에 가려던 예정을 변경하여 연기가 오르는 북방을 향해 떠난다.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사랑에게 강원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화전민 때문임을 알 수 있다.<sup>30)</sup>

김사랑 문학에서 강원도 산골과 그곳에 사는 화전민은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화전민과 관련한 글로는 「산곡의 수첩」(동아일보, 1935.4.21.-28), 「폴숲 깊숙이」(『문예』, 1940.7), 「山家三時間, 深山紀行의 一節」(『삼천리』 제12권 제9호, 1940.10), 「火田民地帶を行く1-3」(『文藝首都』, 1941.3-5), 「태백산맥」(『國民文學』, 1943.2-4,6-10)이 있다. 이 글들은 크게 두 가지의 계열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산곡의 수첩」(동아일보, 1935.4.21., 23, 24, 26-28)과 「폴숲 깊숙이」(『문예』, 1940.7)를 묶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폴숲 깊숙이」에는 「산곡의 수첩」에 등장하는 주요한 모티프나 서사 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춘천에서 인제로 들어가는 승합자동차를 탔을 때, “道學者然한老人”을 만나는데 그 노인은 “필시色衣獎勵의 餘紋”<sup>31)</sup>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폴숲 깊숙이

29) 김사랑,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3.

30) 『태백산맥』과 더불어 화전민을 다룬 김사랑의 대표적인 작품은 「폴숲 깊숙이」이다. 「폴숲 깊숙이」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진구는 “코풀이 선생에게서 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조선인으로서의 본성 사이에서 어디에도 동일시할 수 없는 정체성 균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코풀이 선생을 관찰하고 있는 박민석에게도 전이되고 있다는 것을 논증”(김진구, 「김사랑 소설의 인물의 정체성(identity) 문제」, 『시학과언어학』 8권, 2004, 274-275면)하고 있다. 윤대석은 「폴숲 깊숙이」를 분석하면서 김사랑이 “모방을 직접 문제 삼으며 그러한 모방이 얼마나 뒤틀려서 나타나는가를 그려내”(윤대석, 「식민지인의 두 가지 모방 양식-식민주의를 넘어서는 두 가지 방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112면)며, “그러한 뒤틀림에 대한 표현은 그가 이중언어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에 가능”(위의 논문, 112면)했다고 결론내린다. 서영인은 “「폴숲 깊숙이」에서 화전민들은 ‘채현될 수 없는’ 서발된으로서 식민주의가 온전히 지배할 수 없는 ‘조선의 현실’을 표상했다.”(서영인, 앞의 논문, 500면)고 보았다. 광형덕은 「폴숲 깊숙이」를 중심으로 “조선어에서 일본어로의 개작 과정 및 기행문에서 소설 창작으로의 과정”(광형덕, 앞의 책, 264면)을 실증적으로 살피고 있다.

31) 김사랑,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1.

」에서는 색의 장려가 중요한 모티프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山家三時間, 深山紀行의 一節」(『삼천리』 제12권 제9호, 1940.10), 「火田民地帯を行く1-3」(『文藝首都』, 1941.3-5), 「태백산맥」(『國民文學』, 1943.2-4,6-10)을 묶어서 얘기해 볼 수 있다. 1941년 2월 28일자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김사량은 1940년 8월경 ‘조영’(조선영화주식회사)의 촉탁을 받고 김승구와 함께 강원도 지역의 화전지대에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이 현지조사와 관련해 서영인은 “화전민”을 소재로 한 영화제작을 위한 것이었다.”<sup>32)</sup>고 설명한다. ‘조영’의 기획에 의한 화전민촌 취재 이후 김사량은 「산가 세 시간(조선어)과 「火田民地帯を行く」(일본어)를 썼으며, 『태백산맥』은 이 취재와 직접 연관을 맺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33)</sup> 「마을의 작부들-화전 지대를 가다 3」(「村の酌婦たち - 火田地帯を行く(二)」(『文藝首都』, 1941.5))에서 김사량은 “화전민들의 생활이나 또는 그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여행의 목적지인 당군 두촌면 가마 연봉 안의 산민을 실록 느낌이 나는 소설 형식으로 후일 풀어 보겠다.”<sup>34)</sup>라는 집필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태백산맥』이야말로 바로 그 계획의 결과물인 것이다.

### 3. 사교(邪教)를 통해 드러난 프로그램화 된 유토피아의 문제점

김사량의 『태백산맥』에서 화전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사교 무리이다. 사교의 문제는 강원도의 화전민을 그린 「풀숲 깊숙이」나 다른 산문에서도 드러난 바이다. 동시에 유토피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교 무리

32) 서영인, 『식민주의와 타자성의 위치』, 소명출판, 2015, 161면.

33) 위의 책, 162면.

34) 김사량, 「마을의 작부들 - 화전 지대를 간다 3」, 『김사량,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영덕 편역, 역락, 2009, 232면.

는 확고한 이상에 바탕한 프로그램화된 유토피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존재이기도 하다.

『태백산맥』에서 이러한 사교의 문제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성용삼이다. 성용삼 부부가 황해도에서 강원도 산속으로 흘러들어 온 것부터가, 사교 무리가 “강원도 금강산 기슭으로 모여야만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수가 있다며 무지한 교도들을 태백산맥으로 몰아갔”(35-36)기 때문이다. 성용삼 가족은 산속에서도 사교의 끊임없는 착취에 시달린다. 사교 패들은 성용삼 처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성용삼의 집에서 온갖 기괴한 짓을 벌여지만, 성용삼의 처는 아무런 차도도 보이지 않는다. 배나무골로부터 칠십 리 떨어진 포교당에서 나온 무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성용삼의 딸 봉이를 데려가는 것이다. 성용삼 부부는 사교패에 속아 외동딸 봉이를 교단에 바쳐서라도 “장생불사하면서 현세의 환락을 누리보려 눈이 어두워”(49) 있다. 나중에 성용삼과 마대연은 종자로 남겨두었던 곡식까지 들고 분교소까지 사교 무리를 따라 간다.

이 사교는 이상향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프로그램화된 이상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교주가 지금의 왕조를 타도하고 등극하면, 이때 분교소의 상사는 자신이 소재하는 도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도들은 관도(官途)에 나아가 영화를 누리는데, 입신출세의 정도는 평소에 바친 치성미(致誠米)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이들은 “불가사의한 영력을 지닌 것의 존재”(163)를 숭배하며, “인생은 필경 이러한 정령, 즉 귀신들의 지배하에 있고 그 생활은 귀신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163)이라고 믿는다. 이 사교는 “고뇌와 공포, 원한과 빈궁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우매한 민중”(164)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도 한다.

그것은 불가사의한 귀신을 제압함으로써 병고와 재앙을 물리치는 것이었고 영인(靈人)의神通력으로 기적적인 생활이 전개되기를 바라는 것

이었다. 그리고 대망의 새 땅이 출현하기라도 한다면, 지금까지 그들 민중에게 영원히 금단의 과실이었던 특권계급의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관도에 들어 전개된 새 생활 속에서 영화를 누려야 한다. (165)

이처럼 사교 무리는 확고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에 바탕해 자신들을 따르는 화전민들에게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용삼은 사교의 “누구보다도 충실한 교도”(165)여서, 자신의 외동딸인 분이도 분교소 상사에게 바쳐 영화를 누리려 한다. 그러나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절망한 성용삼은 끝내 목을 매 자살함으로써, 사교 집단의 유토피아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들 사교의 무리가 동학과 관련된 것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배나무골의 성용삼 가족들을 괴롭히는 사교패들도 동학과 관련되어 있으며, 배나무골에 들어온 여섯 명도 “동학이라든가 하는 놈들”(76)과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읍에서 나온 “관적 놈들”(76)의 행패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된다. 일동과 월동이 호랑이골에서 물리친 도적들 역시 “동학교도”(162)라는 것이 밝혀진다. 나중에는 배나무골을 괴롭히던 사교패와 호랑이골을 습격한 무리들이 같은 일당이라는 사실도 드러난다.

그러나 서술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여 동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이 설명을 통해 사교는 동학의 본령과는 무관한 무리들이 밝혀진다. 서술자는 “서민들의 종교 사상으로 발흥한 것이 동학”(77)이며, 그 핵심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사실 이 가르침은 무엇보다 먼저 천주(天主)의 조화(造化)를 존중하고 천도(天道)의 상법(常法)을 따르며 천명을 우리르고 천리에 합하여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당시 청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불평 있는 자들과 고난과 학대에 처해 있던 민중들이 속속 그들의 산하로 모여들어

그 세가 점차 무시하지 못할 만큼 되었다.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평안케 하며 간사한 권력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정치사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또 무뢰배들은 이 종교를 악용하여 산간이나 벽촌으로 들어가 우매한 민중을 농락하고 너무나 무참하게 그 생활을 유린하였다. (78)

위의 인용문에는 ‘동학’과 “이 종교를 악용하여 산간이나 벽촌으로 들어가 우매한 민중을 농락하고 너무나 무참하게 그 생활을 유린”하는 “무뢰배들”(78)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뢰배들’은 뒤이어 “동학이라 칭하는 간악한 무리들”(78)로 불리기도 한다. 서술자의 이러한 직접적 개입을 통하여, 독자는 동학과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사교패를 분리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다.

## 4. 대타적으로 존재하는 유토피아 충동

### 1) 서울의 대타항

김사량의 『태백산맥』에서는 사교(邪敎)가 추구하는 유토피아와는 다른 차원의 유토피아 충동이 작품의 근본적인 서사를 이끌어간다. 유토피아 지향성이 작품의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고 있지만, 이 때의 유토피아는 대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대타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태백산맥』에서 가장 큰 부정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바로 서울로 대표되는 평지에서서의 삶이다.

김사량의 『태백산맥』은 “지금부터 육십 년 전”(11)인 갑신정변(1884년) 무렵부터를 스토리 시간으로 삼고 있으며, 주요한 공간적 배경은 배나무골이다. 배나무골은 “태백산맥 속에서도 새조차 날아들지 않을 깊은 골짜기”(11)에 위치해 있다. 이 사람들은 “가림주구의 압정에 시달리다 못해,

혹은 천재지변에 쫓겨 온 빈민들”(12)로서, 이들은 존재 자체로 서울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윤천일은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산골로 들어가며, 일동과 월동에게 “나는 저주받은 서울을 증오하고 원망”(22)하며, “그 옛날 은(銀) 안장을 엮은 백마의 젊은이들이 오가고 만 호(戶), 황금 지붕으로 늘어서 꿈처럼 아름답던 그곳에 지금은 악마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벌레들이 기어”(22) 다닐 뿐이라며, “더 이상 그 서울에 미련은 없다.”(22)고 단호하게 말한다. 나아가 월동에게 “우리와 함께 피 같은 침을 서울을 향해 내뿜으렴. 영원히 버리는 거야.”(23)라고 외치는데, 이것은 이들의 산골행이 무엇보다도 서울을 떠나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윤천일 부자는 “시대를 저주하고 세상을 증오하며 서울을 원망하다가 마침내는 자포자기한 반역의 무리, 화전민이 되어버린”(29) 것이다.

작품 후반부에 윤천일이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에 의해 죽게 되었을 때도, “서울에서의 갖가지 추억들”(181)을 떠올리는데, 그것들은 모두 부정적이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부정과 불행들이 존재하는가를 확실히 눈앞에 보았던 것이다. 양반 생활의 추악함과 정치가의 부패, 밖으로부터 몰려오는 모욕……. 그러자 그의 마음이 갑작스레 경직되었다. 이렇게 나는 그 증오스런 서울 앞을 더러운 익사체가 되어 흘러가야만 하는 것일까?”(181)라며 서울을 추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떠올린다. 그는 죽은 이후에도 “증오스런 서울 앞”을 흘러가야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서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은 다른 인물들도 공유하는 특징이다. 봉이의 오빠인 봉수는 백치(白癡)로서 서울에 가서 각설이 행세를 하며 먹고살 생각을 한다. 그런 봉수조차도 “서울이란 건, 나는 잘 몰려두 음청난 곳이라여. 커단 가게들이 쪽 늘어져 있고, 그 앞을 그지 때들이 줄줄이 걸어다니고 있다등만.”(49)이라고 말한다. 봉수는 호랑이골에서 우연히 일동과 월동 형제를 만났을 때도, “이히히, 내가 서울을 몰른다구? 동대문이

다가 종각이다가, 까치 걸은 양반들에다가, 거그다가 짱꼴라 병정으다가, 동냥아치들꺼정 우글우글허구 있지…….”(157)라고 주절거린다. 낙도를 찾은 후에 길만은 월동에게 자신도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때 길만은 “적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월동 씨를 따라가면 틀림없이 서울 어딘가에서 찾아낼 수 있겠지.”(205)라고 말한다. 길만에게 서울은 적이 있는 곳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은 강원도 산골과 대비되는 세상 일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의 부정성은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는 다른 곳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산가 세시간-심산 기행의 일절」(『삼천리』, 1940.10.)은 1940년 9월 1일 경성을 떠나 홍천군 두촌면(斗村面) 소재의 가마산 연봉에 점재(點在)하는 화전민 부락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산간의 한 집에 3시간 가량 머물면서 겪은 일들을 기록한 산문이다. 이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곤궁하기 이를데 없다.<sup>35)</sup>

이 산문에서 주목할 것은 차장 여아나 조수들이 산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횡포에 가까운 행태이다. 이들은 산가 사람들에게 “자꾸 먹을 것을 내어 놓으라 성화”<sup>36)</sup>를 부리고, 이런 모습에 김사량은 “좀 정도가 지나쳤으며 또 그 무례함이 적잖게 비위를 거슬린다.”<sup>37)</sup>고 느낀다. 산가 사람들은

35) 산간 사람들의 곤궁한 삶은 한글로 쓰여진 「산가세시간」보다, 「산가세시간」을 일본어로 옮긴 「맨들레미 꽃-화전 지대를 간다 1」(「멘드레미の花 - 火田民帯を行く(一)」(『文藝首都』, 1941.3), 「부락민과 장작더미 성-화전 지대를 간다 2」(「部落民と薪の城 - 火田民帯を行く(二)」(『文藝首都』, 1941.4)에서 더욱 강조된다. 한가지 사례만 든다면, 산가의 주인이 직접 “저희들 따위는 정말 산에 사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죠. 조금도 인간이라는 생각이 스스로도 들지 않습니다요.”(김사량, 「맨들레미 꽃」, 『김사량,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09, 221면)라고 말하는 부분을 들 수 있다. 「마을의 작부들-화전 지대를 간다 3」에서는 홍천군이 강원도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썩은 도시이지만, “이 읍내에 한 채 밖에 없는 내지인 여관에서도 쌀밥을 내놓지 못한다”(김사량, 「마을의 작부들 - 화전 지대를 간다 3」, 『김사량,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09, 231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이 삼년전보다 홍천군의 생활 수준이 더욱 열악했음을 밝히고 있다.

36) 김사량, 「산가 세시간 - 심산 기행의 일절」, 『김사량,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09, 204면.

자신들의 장작더미가 물에 떠밀려 내려갈지도 모르지만, 차를 정비하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 그 모습은 “부락민들은 겁석겁석 허리를 구부리며 치우래는 돌은 들어 옮기고 차체 아래에 기여 들어 가래면 시퍼렇게 겁을 집어 먹고도 두말없이 엎드려서 몸을 비틀어 넣는다.”<sup>38)</sup>고 묘사된다. 이러한 산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김사량은 의분을 느끼고, “부락민에 대하여 죄스럽고 또 염치없는 생각”<sup>39)</sup>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산가 사람들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자동차 정비에 동원되어 이토록 모욕을 당하며 고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차안의 한 사내가 펼치는 다음과 같은 “부락민 동정론”<sup>40)</sup>은, 산가 사람들이 당하는 횡포가 사회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임을 드러낸다.

부락민들이 오다가다 할 수 없어 좀 타고 가려고 손을 들어도 대체는 민원이라고 눈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내 달리는 금새에 이런 일이 생기면 모두 부락민을 징집하여 죽도록 일만 시키고 막걸리 한 잔을 사주질 않는다는 것이다. 나도 그 말에는 정말로 그렇다면 경춘(京春) 철도 당국은 너무 웅색하고 못쓰겠다고 속 깊이 나무랐다. 그리고 조수들의 태도이며 부락민들의 일들을 생각하며 가히 벌 받을 일이라고까지 의분을 느꼈다.<sup>41)</sup>

37) 위의 글, 204면.

38) 위의 글, 206면.

39) 위의 글, 207면.

40) 위의 글, 207면.

41) 위의 글, 207면. 「부락민과 장작더미 성」에는 산가 사람들의 고통이 다음처럼 더욱 강렬하게 묘사된다. “부락민들이 산길을 왕래하는 가운데 혹은 해도 기울어졌거나 지쳐서 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 등 피눈물과 같은 돈이지만, 하는 수 없이 태워달라고 손을 들어도, 변변히 돌아보지도 않고 자리가 만원이라고 그대로 지나쳐 버리면서도,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불려나와 소나 말처럼 부림을 당한 끝에, 막걸리를 마실 돈 한 푼조차 주지 않는다고 했다. (중략) ‘깃사이 히도가 테스카라네. 모모하나시니 나라나이 테스요’하고, 사내는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점점 더 양분(昂奮)한 표정으로 외쳤다.”(김사량, 『부락민과 장작더미 성- 화전 지대를 간다 2-』, 『김사량,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09, 228-229면)

김사량이 ‘의분’을 느낄 정도로 조수들이 산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의 근원에는 ‘경춘 철도 당국’이 있는 것이다. 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경춘 철도는 부락민의 수고에 대하여 또 복숭아 값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할까 한다.”(208)라고 하여, 당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경춘 철도가 이러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산가 사람들이 산농 지도구에 편입된 화전민들이기 때문이다.<sup>42)</sup> 이들은 한때 평지의 질서에서 벗어나 화전민으로 살았지만, 다시 제국의 질서 속에 편입되면서 그러한 수모를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김사량의 『태백산맥』에서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우선적으로 서울로 대표되는 평지(제국)의 질서와는 대타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강원도 산골 이외의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향수(nostalgia)에 의해 형상화되는 과거의 고향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반복해 등장한다. 낙토를 찾아 떠난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고, 배나무골의 화전민들은 속속 마을을 떠나는 곤란한 상황에서 윤천일은 향수에 빠진다. 이때 그의 고향 마을은 다음과 같이 낭만적으로 그려진다.

끝없는 강의 흐름은 그의 마음을 고향으로 싣고 가는 것이다. 한강을 거슬러 백오십 리, 경성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고 물길을 끼고 있는 복숭아밭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숨어 있는 아름답고 조그마한 마을, 그렇다. 지금쯤은 연분홍색 꽃봉오리들이 한참 부풀어 있을 것이다. 그 봉오리들로 싸인 꽃밭에서 그리운 농부들과 어린 동무들에 아주머니들,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아가씨들의 얼굴 멧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42) 진성화는 “「산곡의 수첩」에 이어 김사량의 「山家三時間, 深山紀行의 一節」(『삼천리』 제12권 제9호, 1940.10)과 그 일본어판으로 보이는 1941년의 「火田民地帯を行く1-3」(『文藝首都』, 1941.3-5)에 등장하는 ‘산민 혹은 부락민’은 산농 지도구에 편입된 화전민을 가리킨다. 제국의 가시적인 영역에 편입되어 ‘지도’ 받는 화전민들의 삶은 유통하며 살아가던 예전 화전민 시절 보다 전혀 나아보이지 않는다.”(진성화, 「김사량 ‘화전민’ 서사 연구」, 『문창어문논집』 58권, 2021, 95면)고 지적하고 있다.

는 나타나곤 했다. 그 꽃밭에서 작은 아가씨들은 풀꽃을 따서 인형을 만들곤 했다. 그리고 서로의 풀인형을 손에 들고 강강수월래를 하며 흥겨워했다. 석양 무렵이면 그도 역시 마치 왕자라도 된 듯이 소의 등을 타고 버들피리를 불어가며 꽃밭 사이를 빠져나와 강둑으로 나가곤 했다. 그리고 보니 죽은 마누라가 아직 정말 옛된 아가씨였을 때 얼핏 한눈에 보고 반했던 일도 먼 전설처럼 떠올랐다. (94-95)

그러나 이토록 행복한 삶도 “서울로 올라가 군인이 되고 성문 옆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마련하고부터는”(96)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날마다 “아내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놀라게만”(96) 할 뿐이다. 작품 후반부에 윤천일이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에 의해 죽게 되었을 때도, 윤천일은 “그리운 고향 땅”(180)을 떠올린다. 이 순간 “그리운 고향의 아리랑”(182)이 들려오는 것을 듣는다.<sup>43)</sup>

배나무골에 사는 “아가씨 대여섯 명”(97)도 향수에 빠져 있다. “이 깊은 산속으로 끌려와서 참담한 생활을 강요당하다 보니 그녀들의 추억이나 수다스러움은 언제나 까마득한 옛 기억을 더듬어 고향과 이어져”(98) 있으며, “저마다 고향은 다르고 추억도 제각각이지만 꿈이 옛날로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다들 마찬가지로”(98)인 것이다.<sup>44)</sup> 이 때의 고향은 향수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본 것으로서, 낭만화되고 이상화된 모습이다. 향수가 ‘지금-이곳’에 대한 당혹감에서 비롯된 정념이며 부재하는 빈자리를 채우는 이상화되고 낭만화 된 환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sup>45)</sup>, 배나무골 화전

43) 그 구체적인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나냐 너냐 누가 더 잘났냐/이러쿵저러쿵할 것 없이 돈이 더 잘난 거지/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182)

44) 그녀들이 느끼는 향수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어렸을 적에는 그나마 셋노란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 정도는 입고 빨간 땃기를 휘날리며 그네를 타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다. 설말의 즐거운 모임에서는 삐걱삐걱하며 널뛰기에 흥이 났고, 달 밝은 여름밤이면 시냇가 버드나무 그늘에서 친구들과 몸을 씻으며 장난을 치고, 귀뚜라미 울어대는 겨울밤이면 등잔불 아래 앉아 옛이야기를 나누며 베갯잇에 수를 놓는 밤이 깊은 줄도 몰랐다.”(98)

45) 노스텔지어는 존재론적 부리 뽑힘 혹은 삶의 근본적 토대의 상실과 연관되어 있다. 집합적

민들의 비참한 현재의 삶이 이상화되고 낭만화된 환상인 ‘과거의 고향’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 2) 화전(민)의 대타항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태백산맥』은 서울로 대표되는 평지의 삶에 대한 강렬한 부정의식을 드러낸다. 또한 윤천일과 화전민들이 끝내 지향하는 낙토 역시 태백산맥에 있다는 점에서 화전민의 삶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착안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지기도 하였다.

윤대석은 『태백산맥』의 화전민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을 현실에 대한 대안이자 전망으로 높게 평가한다. 가라타니 고진의 ‘유동론’에 바탕하여, 『태백산맥』이 “쫓겨난 자, 떠도는 자의 유동성이 가진 가능성을 포착”<sup>46)</sup> 했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부정성을 통해서만 암시된 삶의 가능성이, 조예가 아니라 비오스로서의 삶의 가능성으로서 제시”<sup>47)</sup>된다고까지 적극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김사량이 『태백산맥』에서 그리고 있는 산민들의 교환양식은 증여와 답례에 바탕한 교환양식A에 해당하며, 그것은 “『태백산맥』에서 배제되고 있는 교환양식에 대한 서술에서도 알 수 있다.”<sup>48)</sup>고

---

미래의 전망과 그 미래의 전망이 제공하는 정체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행위자는 노스텔지어를 통해 과거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자원을 길어온다. 즉 노스텔지어가 과거를 회고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위기이다. (Fred Davis, *Yearning for Yesterday, A Sociology of Nostalgia*, New York:Free Press, 1979, pp.34-35. 김홍중, 「골목길 풍경과 노스텔지어」, 『경제와 사회』 77호, 2008.3, 159면에서 재인용)

46) 윤대석, 「김사량 소설과 동아시아 민중 사상」, 『국제어문학회 사가 국제학술대회』, 2018, 79면.

47) 위의 논문, 80면.

48) 위의 논문, 82면. 윤대석은 이전부터 화전민의 삶에서 많은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제목인 ‘풀속깊이’는 ‘숲속 깊이’ 혹은 ‘숲이 무성한 곳’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결국 화전민의 삶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 풀 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식민지 정책도 포함하여)을 다 태워버리고도 남은 약동하는 화전민 문화가 존재하고 있지만, 화전민 편에서도, 박인식 편에서도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윤대석, 「식민지인의 두 가지 모방 양식

말한다. 진성화는 윤대석의 문체의식을 「폴숲 깊숙이」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폴숲 깊숙이」는 ‘지금-여기’의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과 철저한 부정의 단계”<sup>49)</sup>로 볼 수 있으며, “이때 화전민은 피착취자/피억압자로서의 수동적인 민중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을 지르고 유동하며 자기들의 새로운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모습으로, 체제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세력으로 재현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식민지 지배 통치를 교란시키는 민중의 이미지였다.”<sup>50)</sup>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화전민에 대한 김사량의 입장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 산문이나 『태백산맥』을 꼼꼼히 살펴보면, ‘화전민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을 현실에 대한 대안이자 전망’으로 평가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처음으로 강원도의 화전민을 다루고 있는 「산곡의 수첩」은 강원도의 자연에 대한 감탄과 그것에 대비되는 화전민의 비참한 삶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화전민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서이며, “火田틈서리에는 짐승처럼 사람의그림자가 기고도있다.”<sup>51)</sup>는 문장이나 “새뜸지같은 火田民의집”<sup>52)</sup>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전민은 인간보다 차라리 짐승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된다.<sup>53)</sup> 김사량이 화전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北漢江의 上流國有林地帶”<sup>54)</sup>에 서이다. 김사량은 “덩이저 문허저가는 담벽에는 「박」이 두서넛과 怪異한 「부작」이 붙어”<sup>55)</sup>있는 집에서 육십세 가량의 노인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눈다.

식민주의를 넘어서는 두 가지 방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111면)고 주장한다.

49) 진성화, 앞의 논문, 112면.

50) 위의 논문, 112면.

51) 김사량,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3.

52) 김사량,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6.

53) 「산곡의 수첩」에는 화전민과 더불어 숲산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묘사도 등장한다.

54) 김사량,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6.

55) 김사량,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6.

이 노인의 삶은 그야말로 유동성 그 자체의 구현이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그는 원래 평남 성천에 살다가 10년 전 아들 부부와 손녀 하나를 데리고 춘천군 샘밭으로 이주한다. 약간의 자농과 소작을 하던 노인은 흥년을 만나자 다시 깊은 산골로 떠나 춘천군 북산면에서 화전을 시작한다. 이후 그곳의 산이 국유로부터 기업가의 손에 불하되어 3분의 1을 도조(賭租)로 수납하라는 명령이 내려오자 4년전에 생로를 찾아 해매이다 양구군의 산협으로 가고, 그 이듬해에 여름 사태로 집과 손자를 잃어버리자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삶에 구현된 유동성에는 긍정적 자발성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으며, 오직 수동적인 도피의 과정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다. 이는 김사량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輿地에 그들은 마치 洽蕃策에 걸리운 蠻族처럼쫓겨들어갔다.”<sup>56)</sup>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 도착해서도 노인의 비극은 끝나지 않아 작년에 냉수해가 침범하여 양식을 모두 빼앗기자, 아들 부부는 자식을 남기고 종적을 감추어 버린다. 계속된 유동의 끝에 이들이 맞닥뜨린 결과는, “죄다 떠났습디유. 모두가못살게되어버렸세유.”<sup>57)</sup>라는 노인의 말에 간명하게 압축되어 있다.

화전민과의 심도 있는 만남 이후, 김사량은 이 산문의 처음에 보여준 희망이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낙담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로밤을 깊도록그들과이야기 한나는 여러가지感念과鬱血에 燃燒되어 마치 마치로머리를 얻어맞은것같이 허방지방山脊의險路를 다시 내려오는것이였다.”<sup>58)</sup>고 서술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곳서는 生命이 굼어죽거니, 시달려죽거니”라거나 “이곳서는 百姓이 離散하야 거지되나니”<sup>59)</sup>라고 한탄한다. 특히 ‘백성이 이산하야 거지되나니’라는 표현에는 화전민들의 유동성이 지닌 비극에

56) 김사량,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7.

57) 김사량,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7.

58) 김사량,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8.

59) 김사량,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8.

대한 김사량의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나아가 김사량은 화전의 유동성이 지닌 근원적인 한계에 대한 예민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그는 화전민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는 것에 매우 비판적이다. “「노루웨이」의 어떤詩人이 읊은모양으로 이곳山은「祈禱」하지 안고 呻吟하고 있는곳이다. 赤松이듬듬이 보일뿐 그것의 얼굴은 측덤편에 영키우고 썩나무에 이리썰우고 부대(火田)에서러 갈키우고 있다.”<sup>60)</sup>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화전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화전(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폴숲 깊숙이」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다. 「폴숲 깊숙이」에서 박인식이 화전민을 만나려 하는 이유는, “그가 이 산읍에 들어온 것은, 각 산마다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화전민(火田民)들의 질병을 조사하기 위해, 목적지인 양부산(兩斧山)에 가는 길에 들른 것일 따름”<sup>61)</sup>이다. 박인식은 “몽땅 태워버린 험준한 산언저리에 화전민의 간이 움집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그곳에 튕 것 같은 고통마저 느껴졌다. 이 뭐라 해야 할 비참한 고향의 모습이란 말인가.”(78)라고 한탄할 정도이다. 화전민은 하나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비참한 고향의 모습’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H군 경계에 들어서서 발견한 화전민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비참하게 묘사된다.

심산 속으로 깊이깊이 들어가니, 바람은 자고 햇빛은 또한 희미해져갔다. 게다가 산들이 황폐해짐도 갈수록 심각해 만신창이라고 해도 좋을 벌거숭이가 되어 있었고, 버려진 화전이 고약을 붙인 상처처럼 군데군데 검게 그을린 채로 착 달라붙어 있었다. 협곡을 사이에 둔 맞은편 낭떠러지 산 위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인지, 노란 귀리밭 물결이 바람에 나부끼

60) 김사량, 「산곡의 수첩」, 『동아일보』, 1935.4.23.

61) 김사량, 「폴숲 깊숙이」, 『김사량,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09, 69면. 앞으로 「폴숲 깊숙이」를 인용할 경우, 본문 중에 이 책의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고, 한 쪽으로는 간이 움집이 죽은 새처럼 걸려있었다. (89)

김사랑의 『태백산맥』에서 배나무골 사람들은 화전민들로서,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유동성에 바탕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들은 “정찰할 줄을 모르고 산속으로, 산속으로 계속 옮겨 다니”(12)는 사람들인 것이다. 주목할 것은, “산속으로 숨어들어 와 일단 화전민이 되어 버리고 나면 유랑과 방화모경(放火冒耕),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숙명”(12)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화전민에게는 ‘유랑’과 ‘방화모경’이 숙명처럼 얽혀 있다는 점이다. 서술자는 ‘유랑’과 ‘방화모경’을 숙명으로 하는 이들의 삶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데, “애당초 농민이라는 것이 경작을 통해 자연의 은총 속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농민은커녕, 그야말로 하늘에 대고 활을 쏘고 땅에 칼을 꽂는 반역의 무리”(13)로 화전민들을 규정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유랑’과 ‘방화모경’을 핵심으로 하는 화전민들의 삶에 대해 윤천일 부자는 지극히 부정적이다. “산과 숲에 불을 놓아 강토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불만과 저주를 풀어내 보았자 그것이 결코 자기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29)으며, 썩은 감자조차 동이 나면 초근목피 생활을 하다가 각종 병에 걸리고, “자연의 폭력으로 논밭과 집들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맹수들의 습격에 떨어야”(30) 하는 삶이라고 냉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고 지상의 산신령”(33)까지 등장케 하여, 화전민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비판한다. 산신령은 큰 물난리가 나는 이유가 “신령한 산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나의 징벌”(33)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난리는 화전민들이 “닥치는 대로 산에 불을 지르고 숲을 태워 버린 것에 대한 산신들의 분노 때문”(33)인 것이다.

윤천일이 두 아들로 하여금 낙토를 찾게 한 것도, 화전민들로 하여금 화전민의 삶 즉 ‘유랑’과 ‘방화모경’을 핵심으로 하는 삶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이다. 홍수의 비극이 “산사람들이 불을 질러 산들을 벌거숭이로 만

든 것에 기인”(34)한다는 것을 깨달은 윤천일은 “안주할 땅”(34) 계시해 달라고 산신에게 기도를 올린다. 윤천일 부자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랑’이 아닌 “안주의 땅”(38)인 것이다.

‘안주의 땅’이라는 말은 이후에도 몇 번 반복해 등장한다. 일동과 월동이 ‘안주의 땅’을 찾아 떠난 이후로, 윤천일이 배나무골에 남아 주로 하는 일은 “가야지, 가야 된당께.”(61)라고 말하는 배천석처럼 어디론가 떠나려는 화전민들을 붙들어 놓는 일이다. 추상원 노인 역시 “가야지, 어디든지 가야 혀.”(66)라고 말하는데, 그는 “나는 몸이 움직이는 한, 돌아다니면서 불을 놓을 것이고, 마지막이 오면 그 불 속에 뛰어들어 죽어볼뿐 그만이며.”(86)라고 덧붙인다. 이것은 유랑(유동성)이야말로 화전민들에게 체화된 삶의 본능이며, 윤천일은 이러한 유랑(유동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배나무골의 화전민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사람”(86)인 득보 노인의 삶은 그 자체가 유랑에 해당한다. 득보 노인은 본래 평안도의 어느 산마을에서 유복하게 살았는데, 외아들이 관기를 빼돌려 도망치다가 잡히면서부터 득보 노인의 “떠돌이 삶”(87)은 시작된다. 득보 노인은 “화전민 속으로 몸을 던진 이래, 유랑에서 유랑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생활”(88)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 삶은 “길을 떠난다! 떠돌아다닌다! 이것이 그의 원수 같은 운명이 강요하는 유일한 삶의 방법이었던 것”(88)으로 이야기된다. 그렇기에 천일은 “득보 노인 가족을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하기 위해 서라도 낙토(안주의 땅)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고 생각”(86)한다.

『태백산맥』은 화전민인 배나무골과 호랑이골 사람들 188명이 낙토로 이주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행렬에는 그동안 사교에 빠져 있었던 허 서방은 물론이고, 봉이 엄마도 들것에 실린 채 동참한다. ‘안주의 땅’에 도착한 이후, 윤천일은 유언과도 같은 축문을 신에게 올린다. 이 때 축문은 “이미 이 백성은 화전민이 아니니 그대를 모독할 일은 없을 것이다.”(215)라는 문장으로 끝나는데, 여기에서도 화전이 지닌 유동성에 대한 작가의

부정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3) 월동의 대타항

김사량의 『태백산맥』에서 주요한 갈등은 ‘윤천일, 일동 對 ‘월동’ 사이에 서도 이루어진다. 일동과 월동은 아버지 윤천일의 명을 받아 낙토를 찾아 헤매며 끝내는 그곳을 찾아내 배나무골로 돌아오지만, 그 속마음은 매우 다르다. 일동은 아버지 윤천일의 꿈을 그대로 이어받아 서울과는 절연된 산 속의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지만, 월동은 마음 속으로 서울에서의 현실적인 개혁을 꿈꾼다. 일동은 윤천일과 같은 유토피아에의 꿈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월동은 현실에 대한 이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낙토를 찾는 과정에서도 “낙토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어…….”(121)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7장의 전반부에서는 상당히 긴 분량으로 일동과 월동의 입장 차이에 따른 대화가 오고 간다.

월동은 산골에 살면서 낙토를 찾는 것에 대해 “비겁하게 어리석은 나그넷길을 떠난”(123)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자신을 “배신자, 겁쟁이”(123)라고까지 여긴다. 이에 반해 일동은 “현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곳까지 가 버렸고 역사는 붕괴하기 시작”(125)했으며,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힘은 “당량지부(螳螂之斧)에 불과한 거”(125)라고 생각한다. 대지에 나가 일을 도모하는 것은 “웬스레 무뢰한들이 도당을 만들어 치안을 어지럽히고 하층의 동포들을 못 살게 구는”(127)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후에도 둘의 대화는 길게 이어지며, 결국 월동은 “형님, 나도 형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형의 비원이 달성되기를 진심으로 빌게요.”(131)라고 말한다. 그러나 곧이어 “하지만 나에게서는 또 나의 길이 있어.”(131)라며, 혼자 중얼거린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월동이 도모하는 현실개혁의 핵심에는 김

옥균(金玉均, 1851~1894)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래 윤치일은 “일본의 입헌군주제와 같은 형태의 근대국가를 꿈꾸던 김옥균 일파에 가담하여 맹렬한 활약”<sup>62)</sup>을 보여주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갑신정변이 실패하는 바람에 현실에 크게 환멸을 느껴 강원도 산골로 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월동은 김옥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를 지도자로 삼아 현실 개혁에 나아가려는 이상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작품의 마지막에 배나무골 사람들이 낙토로 향할 때, 월동은 매우 우울한 모습을 보여준다. 봉이는 재회한 월동에게서,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연인을 발견”(202)하며, 월동은 “무언가에 쫓기듯이 또는 무언가와 격렬한 사투라도 벌이듯이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202)고 생각한다. 이러한 월동의 모습은 “이번 여행을 거치면서 너그러워지고 안정되어 그 썩늘한 눈매에도 부드러운 빛이 드러나고 있”(202)는 일동과 대비되어 더욱 부각된다. 월동은 봉이에게도 차가워져서, “다만 나는 서울로 나가 흥글분분하게 혼자서 움직이고 싶어졌어. 거치적거리는 것은 싫다구.”(203)라고 말한다. 월동의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는 “다만 김옥균을 되찾아야만 한다는, 오로지 그 마음이 그를 근본에서부터 바꾸어 놓았”(204)기 때문이다. 월동은 “단신으로 서울로 달려가자. 김옥균 선생을 구해야만 한다. 췌해하게 여자에 대한 사랑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204)라고 결심한다. 결국 월동은 김옥균을 구해서 대사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며, 이때 윤치일은 “배신자 놈”(213)이라고 욕하며 월동에게 활까지 쏘며 만류한다. 이 때 월동은 간신히 살아나고, 그제서야 윤치일은 “신의 뜻”(213)이라 여기고 월동의 서울행을 용인한다.

『태백산맥』은 표면적으로는 일동과 월동의 논리 중에 어느 하나가 우위를 차지하지 않은 채, 끝까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월동이

62) 김학동, 「김사량, 김달수, 조정래의 『태백산맥』, 『내일을 여는 역사』, 2008년 가을호, 197면. 윤치일은 갑신정변 당시 김옥균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지만, 그 이전 임오군란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간절하게 믿고 따르는 김옥균이 작품에서 형상화되는 양상은, 월동의 입장을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태백산맥』의 주스토키 시간은 갑신정변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때이다. 이 당시 김옥균은 서울로 압송된 바도 없으며, 일본에서 무력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뿐이다. 김옥균은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난 이후, 일본으로 망명하였으며 그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일본에서 유배 아닌 유배생활로 심신이 피폐해졌던 것은 물론, 때로는 조선에서 보낸 자객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지냈을 뿐이다. 이후 1894년 3월 이홍장을 만나기 위해 상하이로 갔다가 조선인 홍종우에 의해 암살당한다. 그는 갑신정변 이후 살아서는 한번도 조선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한 것이다.<sup>63)</sup> 그렇기에 서울에 있는 김옥균을 구출해서, 그와 대사를 도모하려는 월동의 계획은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월동의 주장이 지닌 가치를 무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론효과는 작가에 의해서 충분히 의도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태백산맥』의 서술자는 “재거사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김옥균은 일본 정부에 의해 이미 오가사하라 섬으로 유배당했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204)고 하여, 월동의 계획이 지닌 비현실성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동의 논리는 친일의 논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월동의 계획이 지닌 비현실성에 대한 형상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64)</sup> 오대산에서 만난 노승은 자신이 일본의 지사들을 만나 필담을 나눈 결과 “실로 그들은 원대한 이상, 고매한 경륜”(142)을 지니고 있으며, “영국, 미국, 아

63) 윤상현, 「역자후기」, 『김옥균』, 지식과교양, 2022, 210면.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은 처음 후쿠자와 유키치의 집에 머물렀으나, 1887년에는 메이지 정부에 의해 오가사하라(小笠原) 섬으로 유배 보내졌으며, 1889년 겨울에는 다시 홋카이도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구스 겐타쿠, 『김옥균』, 윤상현 옮김, 지식과교양, 2022, 56-57)

64) 임종국은 김사량의 『태백산맥』이 “친일작품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작품”(임종국, 앞의 책, 203면)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면서도, 친일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다만 주인공이 김옥균 일파라는 것이 평가에 따라 어떻게 해석될는지?”(위의 책, 203면)라는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시아의 각축장”(142)이 된 지금이라도 “이 나라 정부가 일본과 서로 손을 잡고 청국을 계몽하여 대동단결 동아시아의 환난에 대처하지 않으면 모두 함께 망할 따름이네.”(142)라고 말한다. 이 노승은 “그대들도 가서 이 일본 지식인과 힘을 합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김옥균을 맞이하여 떨쳐 일어서시게!”(142)라고 결론을 내린다. 노승의 말은 『태백산맥』이 발표되던 당시 일제의 대동아공영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노승의 말에 월동은 “절규”(142)하며, “스님, 명심하고 하늘에 맹세코!”(142)라는 말까지 덧붙일 정도로 동조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가는 월동의 이상이 현실과는 무관한 몽상에 가까운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과 손을 잡고 서양에 맞선다는 당시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암시적이지만 강렬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천일이 갑신정변 당시 일본의 무책임과 무능에 크게 실망한 사람으로 형상화된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백산맥』의 시작 부분에서는 갑신정변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1884년 12월 6일 오후, 청병은 급진당을 공격하고 이 때 다케조에 공사는 “철수 명령”(18)을 내림으로써 끝내 갑신정변은 실패하는 것이다.<sup>65)</sup> 이 일을 겪으며, 본래는 “청국과의 전통적인 주종 관계를 타파하고 신흥 일본과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이 나라에 여명이 있는 것”(25)이라 생각했던 윤천일은, “우정국 사변에 따른 다케조에 공사의 조치를 보고, 믿었던 일본에도 단호한 결의가 없음”(25)을 깨닫자 “눈앞이 캄캄해지고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25)함을 느꼈던 것이다. 이것은 서술자에 의해 윤천일의 “재탄생”(25)으로까지 의미부여된

65) 이러한 시각은 일본인들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다. 1916년에 출판된 『金玉均』(民友社, 1916)에서 저자 구스 겐타쿠는 갑신정변의 실패는 “꼭 김옥균과 독립당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의 책임은 일본 정부당국자에 있었다.”(위의 책, 50면)면서, “전혀 도움이 안되는 다케조에에게 이러한 대사를 맡겨 그 혼자 공명을 독차지하려고 하였다. 그 생각의 천박함이나 계획의 경솔함은 거의 어린애 장난과 같다.”(위의 책, 50면)며 당시 일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 윤치일이 그토록 강력하게 서울의 삶을 거부하는 이면에는 일본에 대한 불신과 무책임에 대한 거부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 5. 유토피아의 탈식민적 성격

김사랑이 『태백산맥』을 통해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미래의 청사진이나 설계도가 아닌 대타적인 방식의 열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낙토에는 대타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긍정적 성격이 부여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낙토가 조선 민족의 전통과 연결된 탈식민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낙토를 찾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은 일동이다. 그런데 일동은 “일찍이 이 나라 역사의 발자취를 연구하면서 자기 나름의 고매한 이상을 이끌어낸 젊은 학도”(41)로 소개된다. 그는 산신령으로부터 “안주의 땅”(41)이 동남쪽에 있다는 계시를 받은 이후, 그가 꿈꾸는 ‘안주의 땅’에 다음과 같은 민족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오랫동안에 걸친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삼국정립에서 유래한 지방 할거 정신, 그것이 고려를 거쳐 이조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남인과 북인의 대립이 되었고, 당쟁 때문에 순결한 민족성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다. 고구려의 전투적인 성격, 신라의 진취적인 기상, 백제의 보수적인 특징, 이것들이 핏줄을 통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조선인에게도, 그 역사에도 빛나는 장래가 찾아올 것이다. 근대 민족으로서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이 이상이 마침내 현실의 모습을 띠는 것도 멀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42)

일동은 “안주의 땅”(42)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세상은 고구려, 신

라, 백제, 고려, 조선의 부정적인 특성은 소거되고, ‘고구려의 전투적인 성격, 신라의 진취적인 기상, 백제의 보수적인 특징’과 같은 긍정적인 성격이 혼연일체가 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지니고 있다. 일동은 낙토를 한민족의 압축적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낙토에서 살아갈 배나무골 사람들에게 “여기에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구려 백성도, 신라 백성도, 백제의 백성까지”(42)라며,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들의 이 공동생활 속에서 진실로 새로운 조선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42)라고 열변을 토한다. 이러한 논리는 월동과의 대화에서도 다시 등장한다.<sup>66)</sup>

또한 『태백산맥』에는 ‘화랑 정신’에 대한 강조도 반복해서 나타난다. 윤천일은 민중의 적인 악독한 사교패들과 싸울 준비를 하며, 장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화랑의 정신을 심어주자”(83)라고 결심한다. 오대산에서 만난 노승도 일동과 월동에게 화랑도 정신을 설교한다. 노승은 자신이 “더없이 존앙하는 신라의 원광국사의 세속오계”(143)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한다.

낙토에 도착한 윤천일은 숨을 거두기 직전 “들것 위에 황금불(黃金佛)처럼 정좌하고 앉아”(215) 신에게 올리는 축문과도 같은 “이야기를 시작”(215)한다. 그런데 신에게 올리는 이야기에서, 자신을 “계림의 나라 초망(草莽)의 신(臣) 윤천일”(215)이라 칭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때 ‘계림의 나라’는 ‘신라’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윤천일은 자신을 고대의 신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동 등의 말에서 보이던 고대 정신에 대한 숭배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에 윤천일은 축문을 올리고

66) 일동은 월동에게 강원도 산속에 조선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자신은 이 사람들을 격려하여 완전히 새로운 조선인을 만들고자 하는”(130) 것이라고 말한다. 배나무골의 화전민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일종의 민족대표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고구려의 전투 정신, 신라의 진취성, 백제의 중용적 기풍, 이것이 새로운 국민을 통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나타”(130)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일동은 강조한다.

복지의 주변 산과 봉우리에 이름을 지어준다. 이 때 마지막으로 지어준 이름이 ‘아리랑 고개’이다. 이것 역시 우리 것에 대한 강조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아리랑’이라는 명칭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문화가 압축되어 있다. 김사랑은 산문 「마을의 작부들 - 화전 지대를 간다 3-」(『村の酌婦たち - 火田地帯を行く(二)』(『文藝首都』, 1941.5))에서도, 홍천의 선술집에서 만난 작부가 강원도 아리랑 부르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이 때 김사랑은 그 아리랑에 “그것은 지극히 로칼 칼라 강한, 염불과 같은 장중한 노래였다.”<sup>67)</sup>고 하여 민족적인 성격을 부여한 바 있다. 낙토에 부여한 이러한 민족적 성격은 배나무골에서도 이미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다. 『태백산맥』에는 동네 처녀들이 부르는 각 지방의 아리랑이 무려 10여 편이나 등장하였다. 이외에도 봉이의 오빠 봉수가 부르는 다섯 편씩의 각설이 타령과 아들이 부르는 전통노래도 추가로 언급되고 있다.<sup>68)</sup>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고유한 민족정신과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처럼 새롭게 발견한 낙토에는 배나무골에서부터 내재되어 있던 민족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정원은 탈식민 유토피아를 그린 작품들에는 흥미롭게도 기억을 통해 억압되고 잊혀졌던 역사적 과거가 새로이 발굴되고는 한다고 주장한다. 탈식민 유토피아는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통해 미래를 비추어 낸다는 것이다. 이 때의 과거는 당연히 과거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기억의 행위를 통해 다시 창조된 과거라고 할 수 있다.<sup>69)</sup> 김사랑의 『태백산맥』에서 강조된 고대 국가들의 이상적인 정신이

67) 김사랑, 「마을의 작부들 - 화전 지대를 간다 3-」, 『김사랑,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09, 233-234면.

68) 이외에도 조선의 음식, 의복, 나아가 전통적인 풍속, 지명, 인명 등의 표기에도 조선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자영, 앞의 논문, 400-402면)

69) 박정원, 「서구 중심의 유토피아를 넘어」, 『유토피아 문학』, 알렘, 2021, 114면.

나 화랑도 등은 이러한 ‘창조된 과거’의 사례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이리랑을 비롯한 전통적인 풍속 역시도 민족적 고유성을 독자에게 강하게 환기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태백산맥』에 형상화된 새로운 이상향은 일제 말기라는 암흑기에 나름의 탈식민적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6. 결론

이 글에서는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통해 김사량의 『태백산맥』을 살펴보았다. 유토피아적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태백산맥』의 기본 서사가 서울에서 커다란 정치적 실패를 맞본 윤천일 일가가 강원도의 산골에서 화전민으로 살다가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김사량의 『태백산맥』에는 ‘프로그램화 된 이상으로서의 유토피아’와 ‘다른 세상에 대한 꿈으로서의 유토피아’가 모두 나타나며, 작가는 전자가 아닌 후자를 지향한다. 특히 유토피아적 프로그램에 집착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은 화전민 마을까지 파고든 사교(邪敎) 집단의 형상화를 통해 드러난다. 김사량이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막연하지만 보편적인 이상향으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 때의 유토피아는 대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대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대타향으로 등장하는 것은 서울, 화전(민), 월동의 정치적 입장이다. 『태백산맥』에서 가장 큰 부정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바로 서울로 대표되는 평지에서의 삶이다. 윤천일은 서울을 추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여기며, 서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은 다른 인물들도 공유하는 특징이다. 가림주구의 압정에 시달리다 못해 산골로 쫓겨온 화전민들은, 그 존재 자체로 서울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대타향은 화전(민)을 들 수 있다. 화전민은 ‘유랑’과 ‘방화모경’이 숙명처럼 얽혀

있는 존재이며, 서술자는 물론이고 작품의 주인공인 윤천일 부자도 ‘유랑’과 ‘방화모경’을 숙명으로 하는 이들의 삶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다. 윤천일이 두 아들로 하여금 낙토를 찾게 한 것도, 화전민들이 화전민의 삶 즉 ‘유랑’과 ‘방화모경’을 핵심으로 하는 삶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이다. 기본적으로 『태백산맥』은 화전민인 배나무골과 호랑이골 사람들 188명이 ‘안주의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대타항은 월동의 정치적 입장이다. 일동이 아버지 윤천일의 꿈을 그대로 이어받아 서울과는 절연된 산 속의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과 달리, 월동은 마음 속으로 서울에서의 현실적인 개혁을 꿈꾼다. 월동이 송배하는 김옥균이 작품에서 형상화되는 양상은, 월동의 입장을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김옥균은 갑신정변 이후 살아서는 한번도 조선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서울에 있는 김옥균을 구출해서, 그와 대사를 도모하려는 월동의 계획은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그의 주장이 지닌 가치를 무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월동의 논리는 친일의 논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월동의 기획이 지닌 비현실성에 대한 형상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낙토에는 대타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긍정적 성격이 부여되고 있다. 김사량의 『태백산맥』에서 강조된 고대 국가들의 이상적인 정신이나 화랑도, 그리고 아리랑을 비롯한 전통적인 풍속 등이 조선 민족의 전통과 연결되어 탈식민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사량 문학의 유토피아적 성격을 논의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태백산맥』이 발표된 두달 후부터 연재가 시작된 장편소설 『바다의 노래』(『매일신보』, 1943.12.14.-1944.10.4.)이다. 『바다의 노래』에서 신태주가 건설한 이상촌인 주란섬은 인종지말(人種之末)로 천대받는 재인(才人)들이 사는 노내미 방성의 연장에 놓여 있는 공간이다. 노내미 방성은 민중이 중심이 되어 상호협력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갖춘 곳이었다. 주란섬은 단순하게 해군특별지원병제도의 선전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양

반 중심의 외성/재인 중심의 노내미 방성'의 대비를 통해 드러난 반봉건 의식과 민중주의적 지향이 본격화 된 공간이었던 것이다.<sup>70)</sup> 이와 관련해 낙도에 도착한 직후 윤천일이 축문을 읽는 순간, 무리의 최연장자인 득보 노인이 “고향 땅을 떠나 온 이래 영혼과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보따리 속에 오래 지니고 다니던 자랑스러운 족보를 한 장씩 찢어내어 날리”(216)는 행동은 의미심장하다. 족보란 신분질서를 토대로 하는 유교질서의 상징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sup>71)</sup> 『바다의 노래』에 등장하는 유토피아인 주란섬의 반봉건 의식과 민중지향적 성격은 『태백산맥』의 마지막에 암시적으로 드러난 반유교적인 태도가 보다 본격화 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70) 주란섬이 가진 유토피아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이경재의 「평양(平壤) 표상(表象)에 나타난 제국(帝國) 담론(談論)의 균열(龜裂) 양상(樣相) -김사량(金史良)의 『바다의 노래』를 중심으로」(『어문연구』 49집 2호, 2021, 275-304면)를 참고하였음.

71) 서술자는 유교가 지니는 시대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물론 유교야말로 모든 이들이 의지할 유일한 길로서 특권계급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특권계급의 형식적인 자기 과시와 썩은 유교 패들의 당쟁만을 불러오고 민중들을 쓸데 없이 구속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 버리자, 오히려 그들이 타기하고 나아가 경원하는 것이 되었다.”(163)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김사랑, 「山寺吟」, 『조선일보』, 1934.8.7.-8.11.  
\_\_\_\_\_, 「山谷の手帖」, 『동아일보』, 1935.4.21.-28.  
\_\_\_\_\_, 「草深し」, 『文藝(朝鮮特輯號)』, 1940.7.  
\_\_\_\_\_, 「山家三時間, 深山紀行의 一節」, 『삼천리』, 1940.10.  
\_\_\_\_\_, 「火田民地帶を行く1-3」, 『文藝首都』, 1941.3-5.  
\_\_\_\_\_, 『太白山脈』, 『國民文學』, 1943.2-4,6-10.  
\_\_\_\_\_, 「산가 세시간 - 심산 기행의 일절 -」, 『김사랑,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형덕  
번역, 역락, 2009.  
\_\_\_\_\_, 「맨들레미 꽃-화전 지대를 간다 1-」, 『김사랑,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형덕  
번역, 역락, 2009.  
\_\_\_\_\_, 「부락민과 장작더미 상- 화전 지대를 간다 2-」, 『김사랑, 작품과 연구2』, 김재  
용·곽형덕 번역, 역락, 2009.  
\_\_\_\_\_, 「마을의 작부들-화전 지대를 간다 3-」, 『김사랑,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형  
덕 번역, 역락, 2009.  
\_\_\_\_\_, 「풀숲 깊숙이」, 『김사랑,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형덕 번역, 역락, 2009.  
\_\_\_\_\_, 「태백산맥」, 『김사랑, 작품과 연구4』, 김재용·곽형덕 번역, 역락, 2014.

2. 단행본

- 곽형덕, 「번역된 식민지 오지 기행-〈풀숲 깊숙이〉 창작과정 연구」, 『김사랑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266면.  
김홍중, 「골목길 풍경과 노스텔지어」, 『경제와사회』 77호, 2008.3, 159면.  
남상욱, 「아름다운 마을'은 내 마음속에?」, 『유토피아 문학』, 알렙, 2021, 149면.  
박정원, 「서구 중심의 유토피아를 넘어」, 『유토피아 문학』, 알렙, 2021, 114면.  
서동욱, 「노스텔지어 - 노스텔지어, 외국인의 정서」, 『일상의 모험』, 민음사, 2005,  
324-336면.  
서영인, 「식민주의와 타자성의 위치」, 소명출판, 2015, 161면.  
오봉희, 「유토피아 문학의 형성과 발전」, 『유토피아 문학』, 알렙, 2021, 22면.  
윤대석, 「식민지인의 두 가지 모방 양식-식민주의를 넘어서는 두 가지 방식」, 『식민지  
국문문학론』, 역락, 2006, 112면.  
윤상현, 「역자후기」, 『김옥균』, 지식과교양, 2022, 210면.

- 이명호, 「저 멀리, 아직은 아닌 세계를 향해」, 『유토피아 문학』, 알렘, 2021, 7면.
- 이한구, 「한국인의 유토피아」, 『유토피아 인문학』, 석탑출판, 2013, 182면.
- 임종국, 「金史良論」,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203면.
- 葛生東介, 『김옥균』, 윤상현 옮김, 지식과교양, 2022, 56-57면.
- Beneri, Marie Louise, 『유토피아 편력』, 이주명 옮김, 필맥, 2019, 4-17면.
- Cioran, Emile Michel, 『역사와 유토피아』, 김정숙 옮김, 챔터하우스, 2022, 188면.
- Davis, Fred, *Yearning for Yesterday, A Sociology of Nostalgia*, New York:Free Press, 1979, pp.34-35.
- Jameson, Fredric, *Archaeologies of the Future*, London:Verso, 2005, pp.18-19.
- Janelle L., Wilson, *Nostalgia*, Lewisburg:Bucknell University Press, 2005, pp.20-38.
- Mannheim, Karl,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임석진 옮김, 김영사, 2012, 235-412면.
- Nozick, Robert,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83, 392면.
- Paquot, Thierry, 『유토피아』, 조성에 옮김, 동문선, 2002, 81면.

### 3. 논문

- 김미정,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를 ‘함께’ 만들기 위해」, 『유토피아 문학』, 알렘, 2021, 211면.
- 김석희, 「김시명(金時明)의 생애와 “친일”—식민지 관료소설로서의 『풀 속 깊이』를 출발점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5권 2호, 2010, 87-91면.
- 김진구, 「김사량 소설의 인물의 정체성(identity) 문제」, 『시학과언어학』 8권, 2004, 274-275면.
- 김학동, 「김사량의 『태백산맥』과 민족독립의 꿈 - 조선민중의 혼을 담아내기 위한 글 쓰기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68집, 2006.8, 192면.
- \_\_\_\_\_, 「김사량, 김달수, 조정래의 『태백산맥』」, 『내일을 여는 역사』, 2008년 가을호, 197면.
- 서영인, 「김사량의 『태백산맥』과 조선적 고유성의 의미」, 『어문론총』, 62집, 2014, 504면.
- 서은혜, 「김사량의 ‘民族我’에 관하여」, 『한립일본학연구』 4집, 1999, 101면.
- 윤대석, 「김사량 소설과 동아시아 민중 사상」, 『국제어문학회 사가 국제학술대회』, 2018, 79면.
- 이경제, 「평양 표상에 나타난 제국 담론의 균열 양상 -김사량의 『바다의 노래』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9집 2호, 2021, 275-304면.
- 이자영, 「김사량의 『태백산맥』론-작가의 민족의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34집, 2010.4, 407면.

- 이춘매, 「김사랑의 소설에 반영된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삶과 이산」, 『한중인문학연구』 29집, 2010.4, 86면.
- 이희원, 「일제 말기 김사랑 소설의 공간 형상화 전략 연구」, 『한국민족문화』 77집, 2020, 211-223면.
- 진성화, 「김사랑 '화전민' 서사 연구」, 『문창어문논집』 58권, 2021, 95면.

<Abstract>

## A Study on Utopia in Kim Saryang's *Taebaek Mountains*

Lee, Kyung-Jae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work using utopia as a keyword, not the concepts of resistance, ethnicity, minority, and fluidity used to understand Kim Sa-ryang's 『Taebaek Mountains』. The reason why the concept of utopia is important is that the basic narrative of the Taebaek Mountains is the story of the Yoon Cheon-il family, who experienced great political failure in Seoul, living as Hwajeon residents in a mountainous area in Gangwon-do and leaving in search of a new utopia. Therefore, the exploration of the utopian character of the 『Taebaek Mountain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work and explaining Kim Sa-ryang's artist spirit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is end, this paper actively examined various discussions on utopia and the author's prose written at a similar time. In Kim Sa-ryang's Taebaek Mountains, both "Utopia as a programmed ideal" and "Utopia as a dream for another world" appear, and the author aims for the latter rather than the former. In particular, criticism of the urgent obsession with utopian programs is revealed through the embodiment of a social group that has dug into the Hwajeonmin village. The utopia that Kim Sa-ryang aims for exists as a vague but universal utopia, which reveals criticism and problem consciousness of existing society. Utopia at this time is usually revealed in a way that criticizes negative reality. At this time, it is the political position of Seoul, Hwajeon (people), and Woldong that

appear as pinch-hit ports. Nakto is sometimes given a positive character in a direct way, not in a pinch-hit way. It naturally shows a postcolonial character by positively narrating the ideal spirit of ancient countries, Hwarangdo Island, and traditional customs including Arirang.

Key words: Kim Sa-ryang, *Taebaek Mountains*, Utopia, Slash-and-burn farmers, Seoul, Decolonization

투 고 일: 2023년 8월 20일

심 사 일: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9월 18일